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85

▶ 86회 예고
수석장로인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쇼까라마를 떠나 아호강 부근으로 가버린다. 마힌다 장로와 아쇼까왕이 만류했지만 소용없었다. 아쇼까라마에 이교도들이 들어와 사문행세를 하며 법회를 방해하고 계율을 훼손하고 다녔기 때문이었다.



아쇼까왕, 수자따탑 조성을 명하다

아쇼까왕 순례일행은 아쇼까왕의 지시로 뻡팔라나무 앞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붓다가 깨달은 이후 7일 동안 뻡팔라나무 밑에서 해탈의 기쁨을 누리었듯 모두들 임시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기쁘게 밤을 새웠다. 다만 단 한 사람 띠쉬아락시따 왕비만 시녀를 데리고 임시숙소로 돌아가 잠을 잤다. 임시숙소에 든 그녀가 시녀에게 투덜거렸다.

"차가운 안개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니?"

"두터운 숄을 두르면 돼요."

"숄을 두른다고 추위가 가시겠니? 나는 피곤해. 잠을 편하게 자야 돼. 그런 곳에서 밤을 새우는 대왕님을 이해할 수 없어."

"아상디밋따 왕비님은 뻡팔라나무 이파리를 주워서 품속에 넣던데요."

"그까짓, 나무이파리가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 최소한 내 손목에 찬 팔찌 정도는 돼야지."

그러나 우빠굽따와 마힌다, 악기브라흐마, 상가밋따, 아쇼까왕은 새벽까지 단 한 순간도 졸지 않았다. 그래도 붓다가 보았던 샛별은 보지 못했다. 짙은 안개가 몰려와 뻡팔라나무를 덮어버렸다. 뻡팔라나무 가지에 깃든 새들이 우짖는 맑은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아쇼까왕은 한 그루 나무에 이처럼 수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을까 하고 신기해했다. 아쇼까왕이 아상디밋따에게 말했다.

"붓다께서 깨달은 자리의 이 뻡팔라나무를 나는 앞으로 붓다를 대하듯 사랑할 것이오."

그때 상가밋따가 다가왔다.

"사문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저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뻡팔라나무가 붓다와 같아서 그냥 무념무상의 선정을 즐겼습니다. 새들이 노래할 때는 붓다의 아름다운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우빠굽따가 호위대장과 함께 와서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불탑을 두 배로 키우려면 많은 흙이 필요합니다. 흙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뻡팔라나무 옆의 흙을 파서 조성하시오. 불탑에 쓰일 흙을 파면 연못도 하나 생길 것이오."

"연못을 파게 되면 반드시 용이 와서 살 것입니다. 용이 뻡팔라나무와 불탑을 수호할 것입니다."

"대장, 우리 얘기를 들었지요? 호위부대 조장을 이곳에 남게 하여 불탑을 지금보다 더 크게 조성하시오. 왕실로 돌아가자마자 나는 자금을 관리하는 마하마따를 파견하겠소."

"예, 대왕님."

우빠굽따가 다시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이곳은 다시 오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으로 올 때 거쳤던 네란자라강을 다시 가보시겠습니까?"

"좋소."

아쇼까왕 순례일행은 우빠굽따를 따라서 네란자라강으로 갔다. 이번에도 아쇼까왕은 대왕코끼리를 타지 않고 걸어갔다. 이 길을 맨발로 걸었던 붓다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였다. 우빠굽따는 길을 안내하면서 붓다가 깨달음을 성취한 뒤 이곳에서 어떻게 보냈는지를 이야기했다.

"붓다께서는 깨달음을 이룬 뒤에도 뻡팔라나무 아래서 7일을 보내시고, 유미죽을 공양 받은 아자빨라나무 아래서 다시 7일을 보내시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붓다는 모짜림마을로 가다가 교만한 브라흐민을 만났다. 그가 말했다.

"사문이여, 그대는 어떻게 해야 브라흐민이 되는지 아시오?"

붓다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잠시 후 그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

"브라흐민은 죄악을 멀리하고, 마음이 교만하지 않소. 언제나 자제할 줄 알고, 〈베다〉에 정통하여 청정한 수행을 완성하지요. 브라흐민이란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에게 어디엔들 교만함이 있겠소?"

그러나 교만한 브라흐민은 깨달은 붓다를 알아보지 못하고 코웃음을 치고는 떠났다. 붓다는 모짜림마을 무짜린다 연못가의 반얀나무 아래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우기가 아닌데도 찬바람이 불다가 큰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7일 동안이나 내렸다. 그때 반얀나무에 살던 코브라가 나타나 붓다의 몸을 일곱 번 감고 납작한 머리를 쳐들면서 외쳤다.

"어떤 추위와 더위, 모기와 전갈, 바람과 열기, 뱀도 결코 붓다를 범접하지 못할 것이다!"

붓다는 깨달은 지 4주째에는 네란자라강 건너에 있는 라트나라(Ratnara)마을로 갔다. 라트나라는 보석이라는 뜻이어서 보석마을이라고 불렀다. 라트나라마을에도 반얀나무가 있었다. 붓다는 반얀나무 그늘에서 7일 동안 선정삼매에 들어 해탈의 기쁨을 누렸다. 5주째는 수자따에게 유미죽을 공양 받은 아자빨라니그로다나무 밑으로 자리를 옮겼다. 7주째는 무짤린다 연못과 네란자라강 사이에 있는 라자야따나나무 밑으로 갔다. 그곳은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나 있었다. 그때였다. 욱깔라마을에서 온 뿟까리왓띠 출신의 상인 따뿟사와 발리까 두 사람이 소수레에 팔 물건을 싣고 지나다가 근처의 라자야따나나무 아래 앉아 있는 붓다를 발견했다. 붓다의 몸에서는 흰빛이 나고 있었다. 형제간인 두 상인은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 곡물가루와 꿀을 붓다에게 공양하려고 했다.

"존자시여, 저희가 올리는 공양물을 받으소서. 존자와 존자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저희 형제를 존자의 신도로 받아주소서."

붓다가 허락하자 두 상인은 붓다와 붓다의 가르침에 귀의했고 최초의 재가제자가 되었다. 두 상인이 스승을 만난 징표를 받고 싶어 하자 붓다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주었다.

아쇼까왕은 수자따가 6년 고행을 마친 싯다르타에게 유미죽을 공양한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호위대장을 불러 지시했다.

"이곳은 수자따 처녀가 붓다께 유미죽을 공양한 성스러운 곳이오. 보드가야 뻡팔라나무 옆에 불탑을 세울 예정이듯 이곳에는 수자따탑을 조성하시오."

우빠굽따가 말했다.

"벽돌로 조성하되 맨 위에는 아자빨라나무를 심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오. 백성들은 아자빨라나무를 보면 붓다와 수자따를 생각할 것이오."

아쇼까왕은 수자따탑을 조성하라고 지시하면서 우빠굽따에게 물었다.

"수자따가 무슨 뜻이오?"

"최고의 선을 행한 여성이란 뜻입니다. 처녀의 본래 이름은 아닙니다."

"붓다께 처음으로 공양을 한 처녀라고 하니 이름도 알고 싶소."

"처녀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본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란자라강에 도착한 아쇼까왕은 우빠굽따에게 설법을 청했다.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기 전에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소. 붓다께서 십이연기를 관했다고 했소. 짧은 게송의 실제 내용을 듣고 싶소."

"대왕님이시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빠굽따가 이동법당 수레에 올랐다. 아상디밋따 왕비가 시녀들을 시켜 순례일행에게 짜이를 한 잔씩 돌렸다. 순례일행은 토기잔에 든 짜이를 받아들고 모래밭에 앉았다. 네란자라강 너머 우루웰라 고행촌의 수행자들도 모래밭으로 왔다. 이윽고 우빠굽따가 뻡팔라나무 아래서 깨달은 붓다의 십이연기에 대해서 설법했다.

"붓다께서는 괴로움(苦)의 본질을 통찰했습니다. 그 결과 존재에 대한 무지와 그릇된 견해가 곧 고통의 원인이며, 감각적 욕망이 곧 고통의 뿌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붓다께서 사유와 숙고를 해보니 열두 가지의 연결고리로 맞물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빠굽따는 짜이가 식기를 기다렸다가 마셨다. 토기잔을 들고 있던 아쇼까왕과 순례일행도 우빠굽따를 따라서 토기잔을 들었다. 마침내 우빠굽따가 십이연기에 대해서 설했다.

'붓다께서 '이것이 있으면 더불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더불어 저것이 생긴다. 무지를 조건으로 하여 의지에 의한 형성 작용(業, 行)이 일어나고, 이 의지에 의한 형성 작용을 조건으로 하여 재생 식(識)이 일어나고, 식을 조건으로 하여 몸과 마음의 결합(名色)이 일어나고, 몸과 마음의 결합을 조건으로 눈, 귀, 코, 몸, 마음 등 여섯 개의 감각기관(六入, 六處)이 생겨나고, 여섯 개의 감각기관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受)이 일어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愛)가 일어나고,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取)이 일어나고, 집착을 조건으로 다시 태어나 존재하고자 하는 성향(有)이 일어나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老死)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고의 무더기(苦蘊) 전부가 생겨난다.' 라고 통찰하셨습니다."

우빠굽따는 거꾸로도 붓다가 깨달은 십이연기를 설했다.

"붓다께서 '이것이 없으면 더불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더불어 저것이 멸한다. 무지가 완전히 멸하면 의지의 형성 작용이 멸하고, 의지의 형성 작용이 멸하면 재생 식이 멸하고, 재생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느낌이 멸하고, 느낌이 멸하면 접촉이 멸하고, 접촉이 멸하면 집착이 멸하고, 집착이 멸하면 존재하고자 하는 성향이 멸하고, 존재하고자 하는 성향이 멸하면 태어남이 멸하고, 태어남이 멸하면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이 멸하게 된다. 이리하여 모든 고의 무더기 전부가 멸하게 된다.' 라고 통찰하셨습니다."

마힌다와 상가밋따, 악기브라흐마와 수마나 사미, 아상디밋따는 비로소 붓다의 십이연기 가르침을 이해하고 사무치게 절감했다. 그러나 아쇼까왕은 뻡팔라나무 아래서 하룻밤을 보낸 것에 비해 감동을 받지 못했다. 띠쉬아락시따는 처음부터 우빠굽따의 설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기대할 것이 없었다. 그녀는 우빠굽따가 설법하는 동안 주위를 두리번거리거나 아쇼까왕의 표정을 살피곤 했다.

'대왕님은 왜 이 따분한 설법을 들으시는 걸까?'

시녀에게 투덜대기도 했다.

"얘, 저 우빠굽따 장로의 설법은 항상 지루해."

"왕비님, 대왕님께서 존경하는 장로님이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셔요. 대왕님께서 들으시면 크게 실망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재미있다고 말할까? 난 거짓말하기 싫어. 재미없어."

아상디밋따가 잡담하는 그녀들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띠쉬아락시따는 아쇼까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으므로 아상디밋따의 눈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쇼까왕은 우빠굽따가 설법을 마치자, 바로 일어나 합장의 예를 표했다. 그러자 순례일행 모두가 우빠굽따를 향해 절을 했다. 다만 띠쉬아락시따만 붉은 사리에 모래가 묻을까봐 절하는 시늉만 했다. 그녀는 한시라도 빨리 그녀의 별궁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다.

마침내 아쇼까왕 순례일행은 보드가야를 떠나 빠딸리뿌뜨라로 향했다. 아쇼까왕이 순례일행을 보고 소리쳤다.

"나는 우빠굽따 장로와 함께 순례하는 동안 깊은 공경과 믿음이 생겨났소! 뻡팔라나무 옆에 불탑을 두 배로 키운다면 장차 태어날 백성들도 붓다에 대한 신심과 존경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오! 수자따가 공양을 올린 곳에 수자따탑을 조성한다면 장차 백성들이 보시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란 것을 느낄 것이오!"

아쇼까왕은 보석으로 장식한 일산이 고정된 대왕코끼리를 타고 이동했다. 왕비들은 수레를 탔다. 호위부대 기마병 군사들은 대왕코끼리 앞뒤에서 호위했다. 코끼리 두 마리가 끄는 이동법당 수레도 순례일행을 뒤따랐다.〈계속〉

10·27 법난의 문제,
현실과 대안 학술세미나

한국 현대 불교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인 10·27 법난이 발발한지 어언 42년이 되었습니다.

10·27법난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수사하고,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을 수색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조계종은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한국 현대불교사, 조계종단사에서 씻을 수 없는 법난의 진실을 추구하고, 법난의 역사적 교훈을 되살려, 피해자 명예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에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 10·27 법난 피해자회

| 세미나 개요 |

● 일시 : 불기2566(2022)년 10월 14일(금) 오후 1시30분 ~ 5시30분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 증 언 : 10 · 27 법난의 회고 / 의현스님(전 총무원장, 동화사 회주)
–. 발제 1 : 10 · 27 법난,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활동과 성격 / 김광식(동국대)
–. 발제 2 : 10 · 27 법난, 피해자 개인의 명예회복 방안 / 유승무(중앙승가대)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